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년의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김 현 정

2020년 1월

# 청년의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민 주 흥

김 현 정

이 논문을 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01월

김현정의 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金 鳳 愛   
위 원 서 미 정   
위 원 閔 周 泓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년 01월

Effects of Grandparents' Caregiving  
Experiences among young adults on Attitudes  
toward the older adults

- Focus on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

Kim, Hyeon 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JooHong M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20. 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Human Ecology & Welfa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국문초록 .....	v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6
3. 연구 문제 .....	6
<b>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b>	<b>7</b>
1. 이론적 배경 .....	7
1) 접촉 이론 .....	7
2) 조부모의 돌봄과 생애과정 관점 .....	8
2. 선행연구 고찰 .....	12
1)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 .....	12
2) 노인에 대한 태도 .....	14
3)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과 노인에 대한 태도 .....	15
4) 통제 변인 .....	18
<b>III. 연구방법 .....</b>	<b>20</b>
1. 자료 수집 절차 및 연구대상 .....	20

2. 변수의 구성 .....	22
1) 인구사회학적 변인 .....	22
2) 돌봄 경험(돌봄 유무, 돌봄 시기, 돌봄 기간, 관계의 질) .....	22
3) 노인에 대한 태도 (이미지, 수용성, 위협인식, 정책지원) .....	23
3. 분석방법 .....	25
<b>IV. 연구결과 .....</b>	<b>26</b>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6
2.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 .....	27
3. 노인에 대한 태도 .....	28
4. 돌봄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29
5. 돌봄 경험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31
6. 돌봄 경험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35
<b>V. 논의 및 결론 .....</b>	<b>40</b>
참고문헌 .....	44
부록 .....	49
Abstract .....	56

## 표 목차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26
<표 2> 돌봄 경험 .....	27
<표 3>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 .....	28
<표 4> 돌봄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29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돌봄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30
<표 6>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이미지 .....	32
<표 7>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수용성 .....	33
<표 8>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위협인식 .....	35
<표 9>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정책지원 .....	35
<표 10>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이미지 .....	37
<표 11>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수용성 .....	38
<표 12>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위협인식 .....	40
<표 13>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정책지원 .....	40

## 그림 목차

<그림 1>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수용성 .....	34
<그림 2>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수용성 .....	39



<국문초록>

청년의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김 현 정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지도교수 민 주 흥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돌봄 공백의 대안으로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은 손자녀가 노인과 직접 교류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이는 향후 노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조부모를 통한 돌봄의 경험이 청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돌봄 경험 당시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돌봄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와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20-39세의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했으며, 결측 사례를 제외하여 총 363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돌봄 유무, 돌봄이 이루어진 최초 시기, 돌봄을 받은 기간,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과 청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을 탐색하고,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은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에 따라 청년이 된 손자녀의 현재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유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정책 지원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부모와를 통한 돌봄 경험이 있는 집단이 돌봄 경험이 없었던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지원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를 통한 돌봄을 경험한 손자녀의 경우에 노인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돌봄이 이루어진 최초 시기가 이룰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의 수용성이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을 받은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돌봄 경험에 있어서 시기와 기간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늦은 시기에 조부모를 통하여 돌봄을 받으면서 조부모와 갈등이 낮은 경우에는 조부모와 갈등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또한 돌봄을 받은 기간이 긴 집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정서적 결속이 높은 경우가 정서적 결속이 낮은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수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통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손자녀가 조부모를 통하여 돌봄을 받았는지의 유무, 돌봄이 이루어진 최초 시기와 돌봄을 받은 기간,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 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이미지, 수용성, 위협인식, 정책지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관계의 질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관계에는 돌봄 경험의 시기와 기간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정서적 결속 및 갈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을 손자녀의 위치에서 살펴보았으며, 조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진 돌봄 경험이 손자녀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조부모를 통한 돌봄을 조부모와 손자녀의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생애발달 관점에서의 돌봄이 이루어진 최초 시기와 돌봄을 받은 기간,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 등 다양한 측면으로 돌봄 경험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에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고,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

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손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 등을 통하여 세대 간의 관계의 질을 심도 있게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인 요인을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어 : 돌봄, 세대 관계, 노인에 대한 태도, 접촉이론, 생애과정관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768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900만 7천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9).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sup>1)</sup>와 노령화지수<sup>2)</sup>도 증가하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19년에 20.4명이었으나 2065년에는 100.4명으로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노령화지수도 2016년에는 100.1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19.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인구 구성비의 변동과 더불어 가족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원경·전제아, 2010; 김혜영, 2014; 박윤경 외, 2016; 서선희, 2017; 조현숙,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는 자녀와 부모, 조부모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Bengtson, 2001). 이렇게 확장된 노년기는 성인자녀, 손자녀와 같이 여러 세대와 관계를 맺어야 하며, 새로운 가족구조 속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이 가운데 세대 간 갈등의 여러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사회에 이르러 노인의 건강 상태가 과거에 비해 양호하고 교육수준 또한 향상되어 정년 연장과 일자리의 확대를 요구하게 될 때 노동시장에서 각 세대가 점유하는 기회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경제적 갈등으로 여기기기도 한다(최유석 외, 2015).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노인세대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양 부담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은 청년이 부양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1)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

2) 유소년인구(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

커져가고 있다(김은경, 2003; 이신영, 2003). 여전히 노인은 의존적이고 무력하다는 고정관념과 같이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김윤정 외, 2004), 노인은 의존적이며 가난하고 외로운 존재로 여기는 등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일부의 노인에서 전체 범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다(권명순 외, 2013 재인용; 장윤옥, 2004).

가족은 개인적이며 사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이며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김은정, 2016). 이러한 점에서 가족구성원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 가치관을 사회 역사적 맥락과 관련시켜 이해해야 한다. 개인이 각기 다른 생애과정 속에 사회적 사건과 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과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혜영, 2018). 또한 가족은 사회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사이 상호영향을 매개하고, 가족 내의 개인의 가치와 행동인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유계숙 외, 2018 재인용), 가족 내 세대 관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회 단위세대로서의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요구된다.

우리는 누구나 자연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세대에 이르게 되며, 이는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미래에 노인으로 도달할 청년이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다가올 노년생활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태도(박은경 외, 2016)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부정적 태도가 증폭되면 노인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청년 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김영숙, 2002, 김윤정 외, 2004; 권명순 외, 2013; 박명순 외, 2013; 이신영, 2003).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며 신체적, 정서적 및 여가 준비 행동을 잘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배문조, 2009)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의 긍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문제는 단순히 노인세대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한다(이은희, 2010; 김병조, 2018).

고령화는 노인세대 뿐 아니라 청년세대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세대는 변화하는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변화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으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대이며, 청년이 노인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척도로서 중요하다(한정란, 2000; 이은희, 2010). 전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여러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과의 간접적인 접촉과 직접적인 접촉 경험을 통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뉴스, 신문기사, 도서 등을 통한 간접 접촉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나 인구 고령화와 함께 다루지는 노인문제와 관련한 기사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박윤경 외, 2016)하면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족이나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접촉하는 과정(배문조, 2009; 이신영, 2003; 한정란, 2000)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노인과의 직접 접촉의 경험을 통한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 이에 따라 과생되는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운데 자녀 돌봄의 공백을 발견할 수 있으며(김혜영, 2014; 조정진, 2017), 이 때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과 같이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직접 접촉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했던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통계를 보면, 맞벌이 가구(41.5%)가 홀벌이 가구(24.4%)보다 상대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돌봄 시간의 부족을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29.5%)가 홀벌이 가구(17.1%)보다 대리양육자를 구하는데 더 많은 곤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0). 즉,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돌봄이라는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자녀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돌봄 공백의 대안을 찾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대책을 구하는 과정 중에 그 대안으로 조부모를 통하여 손자녀 돌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맞벌이가구에서 양육지원은 대부분 조부모 등 혈연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양육자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자녀에 대한 주된 돌봄은 이웃(0.2%)이나 아이돌보미 정부지원서비스(0.4%)와 같은 비혈연인보다는 친조부모(9.6%), 외조부모(9.0%), 친인척(1.0%)과 같은 직계가족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당했다(여성가족부, 2015). 이는 가족 외에 자녀양육의 돌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제한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돌봄 방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자녀가 3세 미만이면 혈연관계의 가족, 친인척에 의한 돌봄을 선호하고, 그 만족도 또한 공적보육보다 사적보육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 돌봄의 비율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희, 2012). 이는 전통적으로 혈연관계가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조부모 자신들도 손자녀 양육에 있어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부모 역시 자신들을 대신한 양육 대체자원으로서 조부모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은정, 정순돌, 2011 재인용).

이러한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은 성인자녀세대에게는 자녀돌봄의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손자녀세대에게는 조부모세대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때의 돌봄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돌봄 행위로서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조부모와 돌봄을 받는 사람인 손자녀의 상호작용 관계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오영란 외, 2017). 이에 따라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에서는 새롭게 형성되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 조부모, 주변 노인과의 만남, 부모의 조부모에 대한 관계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는 기존 연구(최유석, 2015)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조부모의 돌봄 유무와 돌봄의 질에 따라 손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경험이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권명순 외, 2013)의

결과에 따라 조부모의 돌봄은 노인과의 접촉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조부모의 돌봄은 손자녀가 노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돌봄경험의 유무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동거, 접촉의 경험을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의 경험으로 연결하여 최초 돌봄 시기와 돌봄 기간,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을 단순 동거 경험이 아니라 돌봄 경험의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전반적 경향을 이해하고,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며,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유무, 최초 돌봄 시작 시기(timing), 돌봄 기간(duration),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청년이 된 손자녀의 현재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 3. 연구 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 경험(돌봄 유무, 최초 돌봄 시기, 돌봄 기간, 관계의 질)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2.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돌봄 유무, 돌봄 시기, 돌봄 기간, 관계의 질)이 청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3.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돌봄 유무, 최초 돌봄 시기, 돌봄 기간)이 청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이론적 배경

#### 1) 접촉 이론 (contact theory)

접촉이론은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적합한 이론으로, 특정 조건에 의해 성립되는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고 긍정적 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박윤경 외, 2016).

접촉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Allport는 “특정 조건의 상황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접촉은 집단 간의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인종 상호 간의 접촉 효과에 대해 연구하며 인종간의 접촉은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키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원영 역, 1993). 당시 미국의 공교육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분리정책이 위헌으로 판결나면서 흑인과 백인 학생들은 동일한 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인종분리철폐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학생과 교사들은 혼란과 긴장 속에서 새로운 인종정책과 학교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 가치와 방향의 전환을 경험해야 했다. 이 때 그들의 편견과 상호 관계를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이 필요했으며, 이에 접촉 이론이 활용되었다(고경은, 2013). 하지만 Allport는 서로 다른 집단이 동일한 환경에서 접촉하는 것만으로 편견이 사라지고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집단 간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거나 편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보았다(고경은, 2013 재인용).

이를 기반으로 Allport는 집단 간 접촉에 있어서 집단 간 동등한 지위,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 목적, 상호 간의 협력, 권위·법 관습의 지원의 4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집단 간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감소될 것으로 보았다(Pettigrew, Tropp, Wagner & Christ, 2011). 이를 통하여 집단 간 접촉 이론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접촉이론을 기반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도 집단 간의 접촉 행위 자체보다는 접촉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며, 단순한 접촉의 빈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의 질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경은, 2013; 이신영, 2003; 원영희, 2003)는 결과를 보였다. 원영희(2003)는 세대 간 우호적 접촉이 연령 간 편견을 완화시키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노인과의 동거경험이나 단순 접촉의 양뿐만 아니라 접촉의 질로서, 세대 간 어떻게 접촉하는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인들에 의해 학습된 경험을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경은(2013)도 접촉이론을 통하여 접촉행위 자체보다는 접촉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보았다. 반면 노인과의 접촉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젊은 세대와 병약한 노인과의 접촉은 노인에 대하여 비호의적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며, 노인 환자와 많이 접촉한 의사들의 경우가 노인들은 의존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원영희, 2003 재인용).

이러한 결과들은 세대 간 접촉의 양 뿐만 아니라 접촉의 질도 노인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접촉 상황의 주요 요건을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 경험의 유무, 돌봄의 최초 시기, 돌봄이 이루어진 기간,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 등으로 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계의 질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손자녀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조부모의 돌봄과 생애과정 관점 (life course perspective)

생애과정 관점은 사회노년학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로, 노화 경험에 있어서 다양성과 인간발달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을 갖는다(김윤경 외, 2019). 생애과정은 연령에 따라 나뉘는 생활패턴으로써, 역사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의 제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 인격체가 변화를 겪는 전환점을 강조한다(이인

수, 1991). 생애과정 관점에서 전이(transition)는 개인의 역할이나 지위가 변화하는 사건이고,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전이들이 시간 축 위에 모여 궤적(trajecory)을 이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삶의 궤적은 일련의 역할 전이의 과정이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위기나 생애사건(event) 등에 대한 반응과 선택의 결과로 본다. 즉 결혼, 자녀출산, 동거, 이혼, 재혼 등과 같은 생애주기상의 주요 전이의 시기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시간표가 연령규범의 형태로 존재한다(김윤경 외, 2019; 민주홍, 2017; 한경혜, 1991; 한경혜 외, 2009)는 것이다. 연령규범, 인구, 경제적 체계와 같은 사회적 맥락과 문화, 계층, 성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위치라는 맥락 속에서, 생물학적, 역사적, 가족시간 위에서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역동적인 삶의 궤적이 생애과정이며, 이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김윤경 외, 2019). 생애과정 관점에서 말하는 시간은 개인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개인의 일생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개인적 시간(individual time), 가족적 시간(family time),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의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한다. 개인적 시간은 개인의 노화와 발달을 의미하고, 가족적 시간은 가족의 자원과 필요를 반영하는 가족의 역할 형태를 뜻한다. 역사적 시간은 개인이 역할 전이를 경험할 때 역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지칭하며, 사회환경의 변화를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때 특정한 동일 시기에 하나의 체계에 진입한 사람들의 집단을 코호트(cohort)라 하며, 코호트 구성원들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별된 특성을 갖게 된다(김윤경 외, 2019; 이인수, 1991; 한경혜, 1991; Elizabeth D. hutchison, 2008).

이에 따라 생애과정 관점은 개인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였는지,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가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인수, 1991). 이렇듯, 생애과정 관점에서는 개개인의 삶의 궤적이 주변의 중요한 타자의 의미 진행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구체화된다는 생애과정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하고(한경혜, 1991; 한경혜 외, 2009), 인간과 개인의 발달은 사회 역사적 맥락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더욱이 부모와 자녀세대의 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서로의 생애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자 관계이다. 그런 면에서 성인자녀가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녀 돌봄의 공백과 이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게 되면서 형성되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가족의 자원과 필요, 가족 구성원의 선택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구체화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한경혜 외, 2009). 이는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한 삶의 행로일 수 있기에 이러한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손자녀의 현재 상황 특성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와의 세대 간 결속을 파악함으로써 삶의 경험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생애과정 관점을 통하여 조부모와 손자녀 세대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김은정 외, 2011; 김은정·정순돌, 2011; 안홍순, 2016; 한경혜 외, 2009). 김은정(2011)은 생애과정 관점을 통하여 변화하는 가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김은정과 정순돌(2011)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노년기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자신의 생애발달 주기에서 벗어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안홍순(2016)은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니었으나,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생애과정에서 요구되는 연령규범과 역할에 변화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경혜 외(2009)는 저소득층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세대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생애과정의 경험이 자녀와 손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며, 조부모의 입장에서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을 통하여 조부모의 돌봄을 통한 손자녀의 삶의 경험, 맥락 파악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고, 손자녀가 현재 노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를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조부모와 동거 경험, 돌봄 경험의 유무뿐만 아니라 조부모를 통한 돌봄의 질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의 질은 조부모가 어느 시기부터 돌봄을 제공했는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고찰

### 1)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

돌봄(Care)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의 행위로 발생한다(오영란 외, 2017). 김혜경 외(2011)는 돌봄을 개인과 개별 가족의 선의, 윤리의 틀을 넘어 사회적 인정과 그에 따른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한 정치적 실천과 윤리의 문제로 보았다. 손자녀 돌봄은 “성인자녀를 대신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행위”로써, 가족 내에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손자녀 돌봄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의 책임, 동거 여부, 기능과 역할 등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지원 조부모, 지원양육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리양육 조부모, 양육참여 조부모, 공동양육 조부모” 등 학문의 영역과 주제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전담양육(주양육)과 공동양육(지원양육)으로 나눌 수 있었다(김은정, 2015). 전담양육은 성인자녀의 경제활동 혹은 성인자녀가 이혼, 가족 폭력, 사망, 수감 등의 이유로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손자녀 양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부모를 통하여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동양육은 성인자녀가 1차적으로 자녀 양육을 하고 있지만 성인자녀의 취업이나 경제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가 한집에 동거하며 양육하기도 하고, 일정 시간동안 손자녀가 있는 성인자녀의 집으로 가거나 손자녀가 조부모의 집에 맡겨져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일시적으로 돕는 형태를 말한다.

국내의 손자녀 돌봄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책임지게 되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손가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의 밖의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간주하고 조손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다루는 데 관심이 두는 경우가 많았다(김원경, 전제아, 2010; 양경순, 한재희, 2013; 이자경, 장숙량, 2016; 조윤주, 2017; 한혜경 외, 2009). 근본적으로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18세 이하 손자녀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손자녀의 기본적 생활 욕구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를 뜻하고 있

지만,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관여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조손가족의 형태로 지내는 것은 아니다(김원경, 전제아, 2010). 예전에는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은 성인자녀 가정의 해체 등 가족 문제로 인하여 조손가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았다(최윤형, 2012)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으로 성인자녀가 1차적 양육을 하지만 경제적 상황, 직장 문제 등으로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정해진 일정 시간 동안만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부모의 돌봄이 행해진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한 집에 동거하며 양육하기도 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조부모가 손자녀가 있는 자녀의 집으로 가거나 손자녀가 조부모의 집에 맡겨져 공동양육 형태의 돌봄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들 스스로 조손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양육의 성격이나 조부모의 역할 등이 조손가족과는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김원경, 전제아, 2010).

조부모의 역할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조부모는 손자녀의 삶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심리적·정서적 지지자, 문제의 해결을 돕는 신체적·지적·경제적 조력자, 도덕 교육자 등의 유형으로 보았다(김효심, 1992; 최윤형, 2012 재인용). 이러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시대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는데,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조부모가 손자녀의 훈육과 보호를 담당하여 손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참여했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변하여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는 등의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처럼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부모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손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볼 수 있다(최윤형, 2012 재인용).

앞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성인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형태로서의 돌봄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을 ‘조부모와 성인자녀의 공동양육 형태의

돌봄'으로 하되,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으면서 돌봄 경험이 있는 상황을 돌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노인에 대한 태도

태도는 개인이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느낌, 입장이나 자세, 가치관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구조(박경란, 2001)를 말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나 대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대상에 대한 지식 등에 의하여 형성되며(한정란, 2003), 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평가나 감정적 반응, 신념과 사고, 대상과 관련한 행동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윤경 외, 2016).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하나의 척도로 어떤 대상에 대한 정서, 인지, 행동 등을 모두 측정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근의 연구에서 태도는 대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느낌, 정서와 같이 좁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한정란, 2004).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인식, 이미지, 인지, 지식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김영숙(2002)은 학생들이 갖는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로 노인인식 SD(Semantic Differential)척도를 통하여 노인 평가 요인과 활동성 등을 분석하며 결과에 따라 평가, 역량, 활동이라는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의미차원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배문조(2009)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속성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 심리 체계로 보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 신체적 특성, 지적능력, 적응능력, 성격특성, 경제능력의 문항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였다. 조현숙(2017)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인식은 노인에 대한 사실과 노인의 노화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뜻하여 사용되었다. 인식 가운데 태도는 타인을 향한 개인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을 통하여 설명되며,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어떤 반응을 하는 지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었다. 한정란(2003)은 태도를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연속선 위에 위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긍정적 기술과 부정적 기술을 양 극단으로 하여 주어진 대상을 평가하도록 하는 의미분별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박윤경, 이은주와 류상희(2016)는 지식이나 정서적 반응을 통한 태도 측정의 한계를



언급하며, 사회적 주체로서의 노인에 대한 수용이나 배제, 노인 증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반응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수용성, 위협인식,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을 포함한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다양한 측정 도구를 통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배문조, 2009; 한정란, 2000; 한정란, 2003)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강지숙 외, 2009; 김윤정 외, 2004)와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는 연구(김병조, 2018)도 있어 일관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 때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박윤경 외, 2016 재인용), 성인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도 간호나 치위생, 사회복지 등 의료 및 복지 관련 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생이나 요양원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종사자로서 노인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한 연구(김병조, 2018; 권명순 외, 2013; 조현숙, 2017)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노인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면서 개인이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등 어떤 반응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청년이 노인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이미지와 인식 측면에서 분석하고, 청년이 노인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3)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과 노인에 대한 태도

지금까지 선행된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에 중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관련 연구는, 조부모 세대와 손자녀 세대 중 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부모와 손자녀의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변인을 규명하고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김원경, 전제아, 2010). 또한 조부모의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가 손자녀 연구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김윤주, 방미란, 2010; 이영숙, 2010; 이자경, 장숙량, 2016).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얻는 즐거움과 보람, 가족 안에서 조부모의 역할과 의미 등을 긍정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었던 반면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문제, 심리적 부담, 성인자녀와의 갈등 등의 결과를 보

여주는 연구들이 있었다(김은정, 정순돌, 2011; 김원경, 전제아 2010; 김은정, 2015, 권명순 외, 2013).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고,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손자녀의 입장을 다룬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에서 손자녀의 적응과 관련한 주제나 조부모와의 생활경험의 전반에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김원경 외, 2010; 오선영 외, 2006; 주소희 외, 2009). 선행연구를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 돌봄의 시기 및 돌봄 기간과 노인에 대한 태도, 관계의 질과 노인의 태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이웃과의 교류나 봉사활동 등을 통한 노인과의 접촉 경험, 혹은 부모와의 동거여부나 단순한 교류의 정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어, 조부모가 제공하는 돌봄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본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먼저, 이웃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만난 노인과의 접촉을 살펴 본 연구에 따르면, 노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은교, 정민숙(2008)은 아동이 지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태도 연구에서 아동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노인에 대한 지각이 노인에 대한 감정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신영(2003)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조부모와 접촉 빈도가 많고 조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한정란(2000)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배문조(2009)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과 동거와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석민애와 한경혜(2018)는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연령 차별적인 태도의 표출 정도가 완화되어졌다는 연구 결과로,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묵적 연령차별태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또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노인이 있을수록, 남녀노인 모두와 동거했던 경험이 있을수록, 노인과

관련한 봉사 활동 경험이 많은 경우에도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김은경, 2003; 권명순 외, 2013; 배문조, 2009; 한정란, 2000).

다음으로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 본 연구에 따르면, 김영숙(2002)은 조부모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조부모와 별거하는 학생들보다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들이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부모와의 단순한 동거 경험 자체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도와 친밀도 등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장운옥, 2002).

조부모를 통한 돌봄의 경험을 살펴본 본 소수의 최근 연구(안희란, 2015)는 부모가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조손가족에 한정하여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할머니를 통한 손자녀 양육지원과 같은 조부모와의 접촉 경험이 손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요약하면, 노인과의 동거 경험과 접촉 경험이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한 연구들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과의 접촉 기회와 경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2) 조부모와의 돌봄 시기 및 돌봄 기간과 노인에 대한 태도

기존 연구에서 조부모를 통한 돌봄이 이루어진 시기와 돌봄의 기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조부모를 통한 돌봄이 이루어졌던 시기의 차이에 따른 연구로 이선자(1989)는 아동기가 노인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이었고, 청년기에 들어가면서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성인기와 중년기까지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비슷하게 한정란(2008)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밝히며 그 이후에 유지되다가 중학교에 이르면 급격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중년기까지 지속된다는 결과를 말하였다. 이른 시기에 노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조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주 접촉하고 다양한 경험을 경험하도록 한다면 노인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부모와를 통한 최초 돌봄 시기가 생애과정의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며, 시기가 이룰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기에 어릴 때의 돌봄 경험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돌봄 기간에 따른 구체적 연구는 미비하였다.

### (3) 관계의 질과 노인에 대한 태도

관계의 질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기존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을 친밀감 또는 우호적인 접촉 등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먼저, 친밀감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한정란(2008)은 가족 내의 조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금룡(2004)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있어서 또래집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했으며, 조부모의 방문횟수가 적을수록, 가깝게 지낸 조부모가 없는 경우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신영(2003)은 세대 간 우호적인 접촉은 노인에 대한 모호한 인식을 줄이며, 부정적 편견을 완화시키기고 노인에 대한 태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수행된 기존의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과 관련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조부모와의 접촉 여부, 돌봄의 양적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았지만 그 결과는 일관된 방향을 보이지 않았다(김윤정, 2004). 먼저 양적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동거 여부, 노인과의 친밀성, 의미가 있는 노인의 존재 유무 등 노인과의 접촉의 질이 중요하다는 연구(권명순 외, 2013; 박윤경 외, 2016)에서 재인용; 배문조, 2009; 한정란, 2000)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나 접촉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힌 연구(배문조, 2009; 이신영, 2003)가 있었으나 노인과의 동거 혹은 접촉 경험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경험을 가진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적응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은정, 정순달, 2011; 김윤

주, 방미란, 2011; 양경순, 한재희, 2012).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얻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 스트레스, 자녀와의 갈등 등의 부정적 영향(김은정, 정순돌, 2011; 김원경, 전제아, 2010, 김은정, 2015; 권명순 외, 2013)에 대하여 다른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며, 조부모의 입장을 논한 연구에 비해 손자녀의 위치에서 다른 연구가 적었다(김원경 외, 2010, 오선영 외, 2006; 주소희 외, 2009). 하지만 세대 간 관계는 조부모의 입장만 아니라 돌봄을 경험한 손자녀의 위치에서 다른 연구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손자녀에 방점을 찍어, 손자녀가 조부모를 통한 돌봄을 경험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경우는 간호나 치위생, 사회복지 등 의료 및 복지 관련 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생이나 요양원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종사자로서 노인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한 연구(김병조, 2018; 권명순 외, 2013; 조현숙, 2017)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정 대상으로 한정된 부분이 제언으로 다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노인과 관계에서 전공 또는 직업 등과 같은 부분에서 특수한 관계를 가진 대상이 아니라 20-39세의 남녀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조부모의 돌봄이 손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양적 측면 혹은 질적 측면의 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 여러 변인들에 의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측면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때, 질적 측면이 어떻게 상호작용 영향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즉, 조부모의 돌봄의 양적 측면으로 조부모를 통한 돌봄 유무, 돌봄이 이루어진 시기, 돌봄 받은 기간을 살펴보고, 질적 측면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로 정서적 결속 및 갈등을 볼 것이다.

#### 4) 통제 변인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서는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

내고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이선자, 1989; 이신영, 2003)도 있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김영숙, 2002)도 있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연구에서 김윤정, 강인파 이창식(2004)은 청년, 중년, 노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는데,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는 노년세대에 비하여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선자(1989)와 한정란(2008)은 나이가 어린 아동기에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청년기 이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금룡(200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에는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이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력에 있어서 김영숙(2002)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성별, 연령,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 수집 절차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 계획,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설문지 구성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승인 번호JJNU-IRB-2019-031-001)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 및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2019년 9월 21일에 예비조사를, 2019년 10월 1일-10월 31일에 본조사를 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익명성 보장 및 설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설문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설문조사에는 총 15분이 소요됨을 알려주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문항과 조부모를 통한 돌봄 문항으로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돌봄을 경험의 여부이다. 또한 돌봄 당시와 현재의 접촉 빈도, 정서적 결속 정도, 갈등 정도 등의 관계의 질 문항과 노인에 대한 태도 문항에 대하여 응답을 요청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했으며, 결측 사례를 제외하여 총 36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은 손자녀 20-39세의 청년 남녀로 하였다. 청년 세대의 범위는 학자에 따라서 연령으로 정하거나 육체 및 정신적 발달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우선 연령을 가지고 청년세대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sup>3)</sup>, 청년패널조사<sup>4)</sup>에서는 만 15-29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sup>5)</sup>에서는 만 19-34세로 정의하고 있다.

3)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를 조사하는 연구로 통계청이 담당한다.

4)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청년 고용동향 조사이다.

5)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육체 및 정신적 발달과정으로 정의한 경우로는 Erickson(1963)이 청년기를 20-40세로 분류하여 친밀감과 사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발달단계로 이해하였다(안홍순, 2016 재인용). 김윤정, 강인과 이창식(2004)은 청년 세대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진경과 이재림(2018)은 20-30대 청년기를 성인전이기 또는 성인이행기의 의미로 사용하여, 졸업, 취업, 결혼 등 생애과정에서의 주요 전이를 압축적으로 경험하는 시기로 설명하였다. 즉 청년 세대는 경제활동전기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결혼과 함께 자녀의 출산 및 양육 등의 연령규범의 적용을 받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연령규범을 이행하는 청년 세대의 나이가 30대 중반 이후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안홍순, 2016). 이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를 20-39세의 사회구성원으로 정의하였다.



## 2. 변수의 구성

###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등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여성=1’, ‘남성=0’, 연령은 생년월일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파악하였으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및 그 외로 하였다. 이 때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학적 상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여부와 돌봄 경험 여부를 확인하여,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으면서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를 돌봄으로 정의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조부모를 통하여 돌봄이 이루어졌던 최초 시기가 몇 세인지, 돌봄 기간은 몇 년간 이어졌는지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2) 돌봄 경험(돌봄 유무, 돌봄 시기, 돌봄 기간, 관계의 질)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은 돌봄의 유무, 돌봄이 이루어진 시기, 돌봄을 받은 기간, 관계의 질로 측정하였다.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유무를 ‘그렇다=1’, ‘아니다=0’,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돌봄이 이루어진 시기가 몇 세였고, 돌봄을 몇 년 동안 받았는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관계의 질은 다양한 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Bengtson(2001)과 그의 동료들은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핵심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며, 세대 간 결속도 모델(intergenerational solidarity model)을 발전시켰다. 이후 학자들에 의해 결속갈등 모델로 확장 되었다. 이에 따르면 세대 간 결속은 접촉 빈도, 의견이나 가치관의 일치, 정서적 표현, 도구적, 경제적 지원, 가족의 역할과 의무를 나타내는 규범적 결속 등의 교환관계를 반영하였으며(최혜정 외, 2019), 세대 간 결속도 모델은 이러한 세대 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을 상정하는 개념이었다(김윤경 외, 2019). 하지만 결속도 모델은 결속도의 다차원적인 면을 고려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이고 일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서, 가족 관계를 결속도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각 구성원의 주관적 욕구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정서적 대치 상태를 뜻하는 갈등의 개념을 더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김윤경 외, 2019; 김혜영, 2014; 이신숙, 김서현, 2014; 최혜정 외, 2019 재인용). 이를 통하여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단일 감정만이 아니라 세대 관계의 애정과 갈등이라는 정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면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의 질은 먼저 긍정적인 부분으로 정서적 결속 정도를 측정하였다. 정서적 결속 정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손자녀는 조부모에 대하여 얼마나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지, 조부모와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등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관계의 질의 부정적인 면으로 갈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갈등 정도를 확인하는 문항은 손자녀가 하는 일에 조부모가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손자녀의 삶에서 조부모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긴장, 의견충돌이 있었는지 등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총 29문항에서 ‘전혀 가깝지 않았음’이 1점, ‘매우 가까웠음’을 6점으로 한 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결속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갈등 정도의 문항은 ‘매우 비판적이었음’이 6점, ‘전혀 비판적이지 않았음’이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높음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역코딩을 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낮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변환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717 이었다.

### 3) 노인에 대한 태도(이미지, 수용성, 위협인식, 정책지원)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1984)이 개발한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 척도를 한정란(2004)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 표현에 적합하도록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반된 동사 20문항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이 척도는 노인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전의 다른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들과는 달리 노인들 뿐 아니라 모든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각 문항은 긍정적 기술과 대응되는 부정적 기술이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항의 배치는 임의로 하여 의도적인 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총 20개의 문항 중 10개 문항은 “깨끗하다-지저분하다”, “세련되다-촌스럽다”, “중요하다-쓸모없다” 등과 같이 긍정-부정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외의 10개 문항에는 “허약하다-건강하다”, “멍청하다-똑똑하다”, “게으르다-부지런하다” 등 부정-긍정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독립적인 점수 범위는 각 문항마다 2.5점에서 3.5점까지이며, 코딩을 할 때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변환하여 처리하였다(1점은 가장 부정적 ~ 5점은 가장 긍정적). 점수는 2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분포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선행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6$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953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정책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2016)에서 개발한 설문지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사회 구성원들의 수용성, 위협인식,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을 개념화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의 수용성 항목은 사회에서 노인이 증가하는 것, 노인이 지역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 노인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배타적이거나 허용적인 태도에 관한 문항이다. 노인의 증가 현상 및 제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들의 수용성을 파악하는 과정은 청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핵심요소로 제시되었다. 위협인식 항목은 사회 구성원들이 노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위기, 위협에 관한 문항이다. 청년의 일자리 감소나 국가 경쟁력 저하, 세금 부담의 증가 등과 같이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파악하며, 노인에 대하여 갖는 태도가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지를 고찰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노인 지원정책에 대한 항목은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뤄지는 지원 정책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이다.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이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위협인식 영역의 4문항은 부정적 진술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변환하여 처

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797 이었다.

###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를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전반적 경향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측정도구로 사용한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집단 간 평균 비교하고, 조부모와의 동거 및 돌봄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이미지, 수용성, 위협 인식, 정책지원)를 비교를 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돌봄 유무, 돌봄 시기, 돌봄 기간)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 때 노인에 대한 태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평균 이하는 0, 평균이상은 1로 이분변수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총 363명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136명으로 37.5%, 여성이 227명으로 62.5%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은 20-39세로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20대는 276명으로 76%, 30대는 87명으로 24%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85명으로 50.1%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학교 졸업 이하는 43.4%, 대학교 졸업 이상은 20명으로 5.5%, 기타는 4명으로 1.1%였다. 다음으로 졸업 이후 현재의 현재 학적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학교 학사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363
항목	구분	N(%)
성별	남성	136(37.5)
	여성	227(62.5)
연령	20-29세	276(76.0)
	30-39세	87(24.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2(50.1)
	대학교 졸업 이하	157(43.3)
	대학교 졸업 이상	20(5.5)
	기타	4(1.1)

## 2. 돌봄 경험(유무, 시기, 기간, 관계의 질)

연구 참여자의 돌봄 경험(돌봄 유무, 돌봄 시기, 돌봄 기간, 관계의 질)은 <표 2>와 같다.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1명으로 47.1%, 동거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2명으로 52.9%가 응답하였다. 이 때 동거 경험이 있으면서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9명으로 38.3%, 돌봄 경험이 없는 경우는 32명으로 8.8%로 나타났다. 돌봄 시기는 0세에서 28세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6.91세(SD=7.48)에 돌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기간은 평균 9.54년(SD=7.80)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질에 있어서 결속 정도는 9-24점의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8.09점(SD=3.69)으로, 갈등 정도는 3-18점의 점수분포에서 평균 14.51점(SD=3.28)로 나타났다.

<표 2> 돌봄 경험(유무, 시기, 기간, 관계의 질)			N=363	
구분		N(%)	M(SD)	range
동거 경험	유	171(47.1)		
	무	192(52.9)		
돌봄 경험(n=171)	유	139(38.3)		
	무	32(8.8)		
돌봄 시기(세)			6.91(7.48)	0-28
돌봄 기간(년)			9.54(7.80)	1-33
관계의 질	정서적 결속		18.09(3.69)	9-24
	갈등		14.51(3.28)	3-18

### 3.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참여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이미지, 수용성, 위협인식, 정책지원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평균 67.93점(SD=10.66)이었고, 최저 33점에서 최대 10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수용성, 위협인식, 정책지원의 경우 최소 4점에서 최대 20점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수용성은 평균 13.08점(SD=2.401)이며, 위협인식의 평균은 12.44점(SD=2.458), 정책지원은 평균 14.45점(SD=2.395)이었다.

<표 3>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

N=363

구분		M(SD)	range
노인에 대한 태도	이미지	67.93(10.66)	33-100
	수용성	13.08(2.40)	4-20
	위협인식	12.44(2.46)	4-20
	정책지원	14.45(2.40)	4-20

#### 4. 돌봄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으로 전반적 경향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표 4>.

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미지, 수용성과 위협인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책지원( $\chi^2=.023$ ,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정책지원은 노인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거나 노인 취업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지원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지와 같은 문항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인에 대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높은 점수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81명으로 44.3%이었으며, 돌봄 경험이 있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58명으로 32.2%이었다. 돌봄 경험이 없으면서 정책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우가 122명으로 67.8%이었으며, 돌봄 경험이 없고 정책지원에 긍정적인 경우는 102명(55.7%)으로 보다 적었다. 이는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일수록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돌봄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N=363, N(%)

		돌봄 경험		$\chi^2$	
		유	무		
노인에 대한 태도	이미지	높음	70(40.5)	103(59.5)	.450
		낮음	69(36.3)	121(63.7)	
	수용성	높음	60(41.7)	84(58.3)	.321
		낮음	79(36.1)	140(63.9)	
	위협 인식	높음	73(42.2)	100(57.8)	.160
		낮음	66(34.7)	124(65.3)	
	정책 지원	높음	81(44.3)	102(55.7)	.023*
		낮음	58(32.2)	122(67.8)	

\* $p<.05$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뒤,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이미지, 수용성, 위협인식, 정책지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이미지, 수용성, 위협인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정책 지원(B=.50, S.E.=.22, p<.05)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정책지원은 노인을 지원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거나 노인이 젊은이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와 같은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를 통한 돌봄을 경험한 손자녀의 경우에는 노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돌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더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돌봄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N=363

구분	이미지			수용성			위협인식			정책지원		
	B (S.E)	sig.	Exp (B)	B (S.E)	sig.	Exp (B)	B (S.E)	sig.	Exp (B)	B (S.E)	sig.	Exp (B)
성별	-.19 (.22)	.389	.827	-.27 (.22)	.234	.767	-.04 (.22)	.872	.965	.01 (.22)	.961	1.011
연령	.06 (.03)	.056	1.060	.05 (.03)	.073	1.056	.01 (.03)	.700	1.011	.02 (.03)	.436	1.023
최종 학력	-.43 (.20)	.026*	.647	-.25 (.20)	.195	.777	.16 (.18)	.367	1.178	.06 (.18)	.743	1.061
돌봄 경험 유무	.14 (.22)	.512	1.155	.21 (.22)	.345	1.234	.32 (.22)	.148	1.370	.50 (.22)	.022*	1.065

\*p<.05

## 5. 돌봄 경험의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에 돌봄 시기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 영향은 관계의 질에 따른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된 후, 변수는 평균중심화(centering) 하여 측정하였다.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이 처음 이루어졌던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이미지는 돌봄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관계의 질에서 정서적 결속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표 6>.

Model 2에서 살펴본 결과,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 가운데 정서적 결속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정서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1.274배 높아질 것( $B=.24$ ,  $p<.001$ )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돌봄이 이루어진 시기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 효과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이미지

N=139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인구 사회 학적	성별	-.71(.37)	.053	.493	-.63(.39)	.106	.532	-.65(.40)	.100	.523
	연령	.02(.04)	.596	1.024	.08(.05)	.102	1.087	.08(.05)	.098	1.088
	최종 학력	-.17(.93)	.833	.848	-.25(.33)	.438	.776	-.23(.33)	.488	.796
돌봄 시기				.03(.03)	.299	1.032	.04(.03)	.223	1.041	
관계 의 질	정서적 결속			.24(.06)	.000***	1.274	.25(.07)	.000***	1.289	
	갈등			-.01(.06)	.856	.988	-.01(.07)	.875	.990	
돌봄 시기 * 정서적 결속							.01(.01)	.441	1.007	
돌봄 시기 * 갈등							.00(.01)	.928	1.001	

\*\*\*p<.001

다음으로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수용성을 보았다<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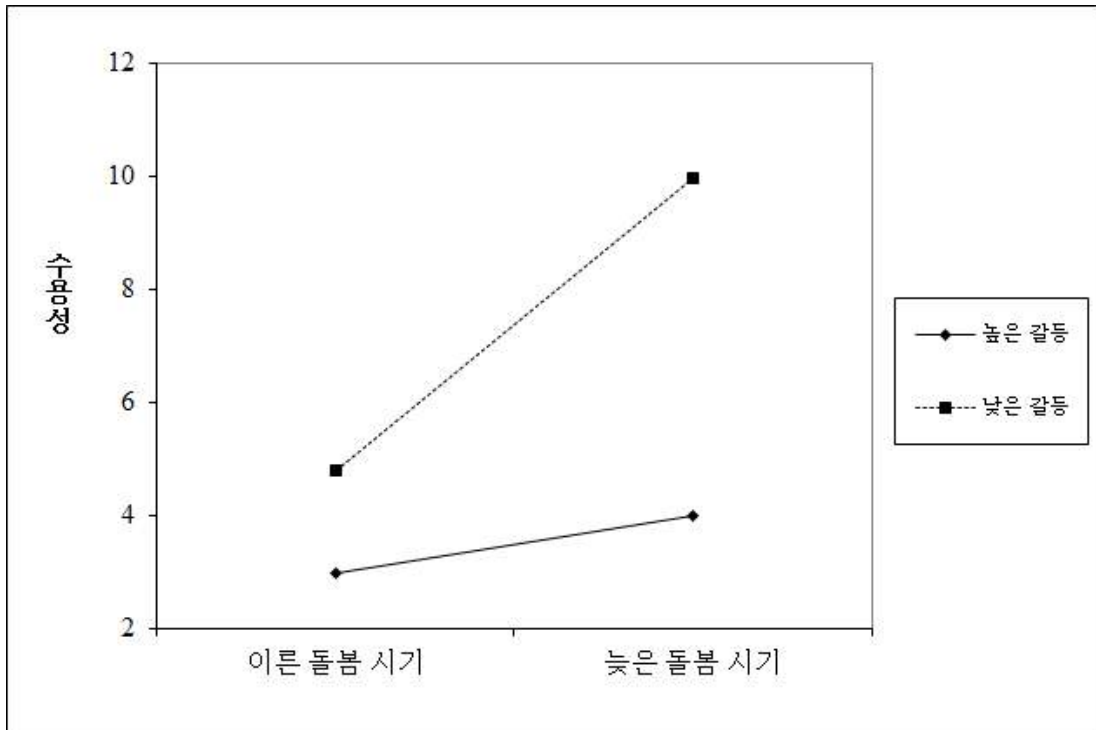
Model 2의 결과를 보면, 조부모를 통한 돌봄이 이뤄진 시기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의 수용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돌봄이 이를수록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1.080배 높아지는 것(B=.08, p<.05)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돌봄이 이루어진 시기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 효과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돌봄 시기가 늦으면서 갈등이 높은 경우일수록 노인에 대한 수용성은 1.006배 이상 높은 것(B=.01, p<.05)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수용성 N=139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인구 사회학 적	성별	-.65(.36)	.072	.521	-.53(.38)	.161	.588	-.55(.38)	.147	.576
	연령	.01(.05)	.856	1.008	.03(.05)	.547	1.030	.03(.05)	.560	1.030
	최종 학력	-.21(.32)	.500	.807	-.31(.34)	.367	.737	-.33(.34)	.338	.721
	돌봄 시기				.08(.03)	.012*	1.080	.07(.03)	.023*	1.073
관계 의 질	정서적 결속				.11(.06)	.061	1.118	.11(.06)	.076	1.113
	갈등				.06(.06)	.318	1.066	.07(.07)	.309	1.068
	돌봄 시기 * 정서적 결속							-.01(.01)	.216	.990
	돌봄 시기 * 갈등							.01(.01)	.049*	1.006

\*p<.05



<그림 1>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수용성

이 결과를 도식화한 <그림 1>을 확인하면, 돌봄이 처음 이뤄졌던 시기에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에서 정서적 결속이 높았는지 낮았는지와 갈등이 높았는지 낮았는지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부모를 통한 돌봄이 처음 이루어진 시기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갈등이 높은 경우에 갈등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노인에 대한 수용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갈등이 높은 집단이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더 낮았고, 그에 비해 갈등이 낮은 집단이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돌봄의 시기만이 아니라 그 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에서 갈등이 영향을 미치며, 갈등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노인에 대한 위협인식과 정책지원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8>, <표 9>.

<표 8>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위협인식 N=139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인구 사회 학적	성별	-.32(.36)	.382	.727	-.27(.38)	.472	.764	-.30(.38)	.443	.748
	연령	-.08(.05)	.079	.923	-.06(.05)	.248	.945	-.06(.05)	.257	.946
	최종 학력	.52(.33)	.119	1.680	.45(.35)	.207	1.562	.45(.35)	.206	1.562
돌봄 시기					-.03(.03)	.361	.975	-.02(.03)	.448	.978
관계 의 질	정서적 결속				.03(.06)	.578	1.031	.04(.06)	.528	1.036
	갈등				.09(.06)	.124	1.098	.11(.07)	.092	1.117
돌봄 시기 * 정서적 결속								.00(.01)	.949	1.000
돌봄 시기 * 갈등								.01(.01)	.324	1.010

<표 9> 돌봄 시기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정책지원 N=139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인구 사회 학적	성별	-.25(.37)	.491	.777	-.13(.38)	.721	.875	-.15(.38)	.700	.865
	연령	-.02(.37)	.639	.980	-.00(.05)	.946	.997	-.00(.05)	.970	.998
	최종 학력	.05(.30)	.875	1.048	-.01(.32)	.976	.997	-.02(.32)	.956	.983
돌봄 시기					.04(.03)	.210	1.037	.04(.03)	.248	1.036
관계 의 질	정서적 결속				.09(.06)	.134	1.087	.08(.06)	.159	1.084
	갈등				.02(.06)	.744	1.020	.03(.06)	.673	1.026
돌봄 시기 * 정서적 결속								-.01(.01)	.498	.995
돌봄 시기 * 갈등								.01(.01)	.315	1.009

## 6. 돌봄 경험의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기간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그 영향은 관계의 질에 따른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된 후, 변수는 평균중심화(centering) 하여 분석하였다.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 경험의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표 10>과 같다.

Model 1에서는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2에서는 관계의 질의 정서적 결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조부모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웠는지와 같은 정서적 결속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서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1.247배 높아졌다( $B=.22, p<.001$ ).

Model 3에서는 조부모를 통하여 손자녀가 돌봄을 받은 기간 동안의 관계의 질인 정서적 결속과 갈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이미지

N=139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인구 사회 학적	성별	-.71(.37)	.053	.493	-.70(.39)	.078	.502	-.70(.40)	.076	.496
	연령	.02(.04)	.596	1.024	.07(.05)	.190	1.073	.07(.05)	.183	1.074
	최종 학력	-.17(.93)	.833	.848	-.13(.40)	.755	.883	-.14(.40)	.733	.872
	돌봄 기간				.02(.03)	.365	1.024	.03(.03)	.316	1.026
관계 의 질	정서적 결속				.22(.06)	.000***	1.247	.23(.06)	.000***	1.254
	갈등				.00(.07)	.984	1.001	.00(.07)	.987	1.001
	돌봄 기간 * 정서적 결속							-.01(.01)	.387	.994
	돌봄 기간 * 갈등							.00(.01)	.735	1.003

\*\*\*p<.001



다음으로는 조부모를 통하여 돌봄을 받은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돌봄 기간 동안의 조부모와 손자녀의 정서적 결속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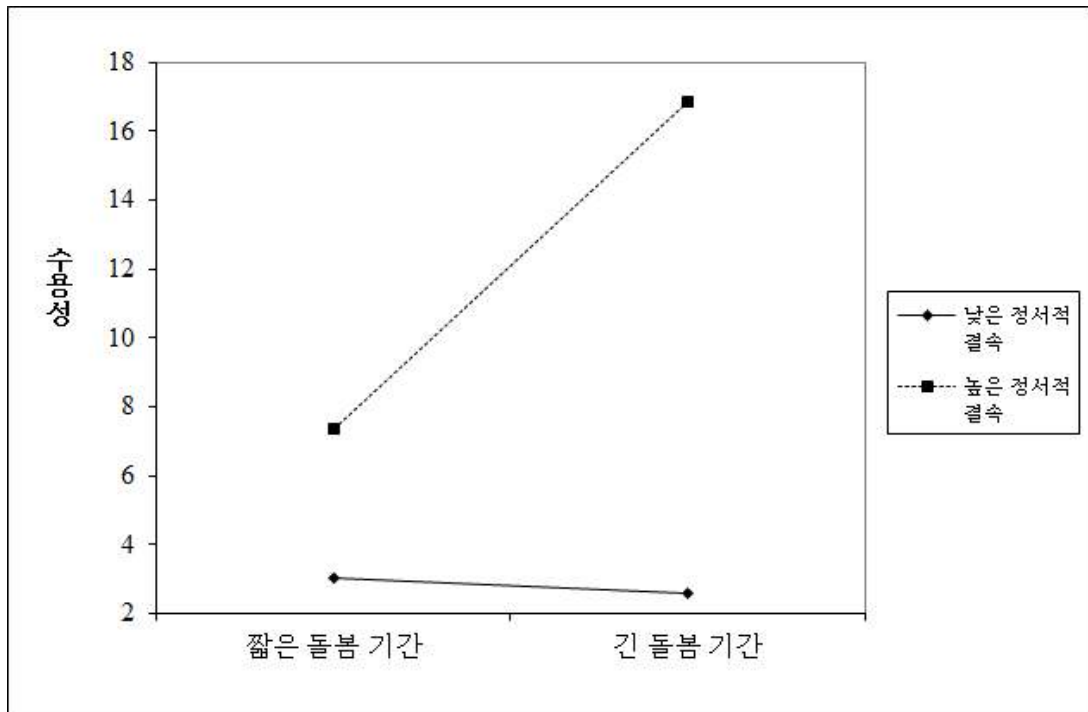
Model 3에서는 돌봄 기간 동안의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수용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돌봄 기간 동안 조부모와 손자녀의 정서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의 수용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확률이 1.017배 높아졌다(B=.02, p<.05).

<표 11>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수용성 N=139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인구 사회 학적	성별	-.65(.36)	.072	.521	-.58(.37)	.122	.562	-.58(.38)	.132	.562
	연령	.01(.05)	.856	1.008	.04(.05)	.428	1.041	.04(.05)	.423	1.044
	최종 학력	-.21(.32)	.500	.807	-.18(.39)	.428	1.041	-.15(.40)	.712	.864
돌봄 기간					-.04(.03)	.135	.964	-.05(.03)	.066	.951
관계 의 질	정서적 결속				.09(.06)	.111	1.096	.10(.06)	.095	1.107
	갈등				.03(.07)	.639	1.031	.02(.07)	.721	1.025
돌봄 기간 * 정서적 결속								.02(.01)	.031*	1.017
돌봄 기간 * 갈등								-.12(.01)	.169	.988

\*p<.05

이를 도식화한 <그림 2>를 보면, 돌봄 기간 동안에 정서적 결속이 낮은 집단은 돌봄 기간이 긴 경우일수록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 기간 동안 정서적 결속이 높은 집단은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인에 대한 수용성도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돌봄 기간의 길고 짧음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수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관계의 질에서 정서적 결속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돌봄의 기간보다는 돌봄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이 어떠했는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수용성

또한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위협인식과 정책지원에 있어서도 돌봄 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표 12>, <표 13>.

<표 12>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위협인식 N=139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인구 사회 학적	성별	-.32(.36)	.382	.727	-.28(.38)	.459	.757	-.31(.38)	.414	.734
	연령	-.08(.05)	.079	.923	-.07(.05)	.189	.935	-.07(.05)	.177	.933
	최종 학력	.52(.33)	.119	1.680	.33(.39)	.189	1.390	.33(.39)	.392	1.391
돌봄 기간				.05(.03)	.060	1.049	.05(.03)	.069	1.048	
관계 의 질	정서적 결속				.02(.06)	.745	1.018	.02(.06)	.756	1.018
	갈등				.13(.07)	.048*	1.136	.12(.07)	.070	1.127
돌봄 기간 * 정서적 결속							-.00(.01)	.887	.999	
돌봄 기간 * 갈등							.01(.01)	.458	1.006	

\*p<.05

<표 13> 돌봄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 정책지원 N=139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인구 사회 학적	성별	-.25(.37)	.491	.777	-.19(.37)	.621	.831	-.12(.38)	.762	.891
	연령	-.02(.37)	.639	.980	-.02(.05)	.674	.980	-.01(.05)	.781	.986
	최종 학력	.05(.30)	.875	1.048	.29(.38)	.448	1.338	.29(.39)	.453	1.341
돌봄 기간				-.00(.02)	.860	.996	-.00(.03)	.919	.997	
관계 의 질	정서적 결속				.08(.06)	.169	1.080	.08(.06)	.160	1.084
	갈등				.02(.06)	.766	1.018	.03(.06)	.596	1.034
돌봄 기간 * 정서적 결속							.01(.01)	.299	1.007	
돌봄 기간 * 갈등							-.02(.01)	.075	.985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돌봄 유무, 돌봄 시기, 돌봄 기간, 관계의 질)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이 있었는지의 유무에 따라 일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이미지, 수용성, 위협인식, 정책지원으로 나눠 예측하였다.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유무는 노인에 대한 정책 지원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조부모와를 통한 돌봄 경험이 있는 집단이 돌봄 경험이 없었던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지원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박윤경, 이은주와 류상희(2016)의 연구에서 노인과 친분이 있고 능동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노인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는데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이 있는 집단 일수록 국가와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노인 또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젊은이와 동등하게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뤘던 단순한 접촉 및 동거의 부분 이외에 돌봄의 질을 나타내는 돌봄 시기, 돌봄 기간,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의 변인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의미 있는 노인이 있을수록, 남녀노인 모두와 동거했던 경험이 있을수록, 가족 내의 조부모와 관계가 친밀할수록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김은경, 2003; 권명순 외, 2013; 배문조, 2009; 한정란, 2000; 한정란, 2008), 이 연구에서도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의 시기, 돌봄을 경험한 기간,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돌봄이 이루어진 시기는 노인에 대한 태도의 수용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돌봄 시기가 이룰수록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돌봄의 시기가 늦은 집단에서 조부모와의 갈등이 낮을 때, 갈등이 높은 집단에 비해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를 통하여 돌봄을 받는 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그러나 조부모와의 정서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도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 또한 돌봄 기간 동안의 정서적 결속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단순히 돌봄 기간이 길다고 해서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때에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돌봄 기간이 길고 정서적 결속이 높을 때, 정서적 결속 정도가 낮은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이는 돌봄의 기간보다는 돌봄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이 어떠한가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돌봄 경험에 있어서 시기와 기간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지만, 관계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는 인구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생겨나는 자녀 돌봄 공백을 피할 수 없다. 이 때, 조부모를 통하여 이뤄지는 손자녀 돌봄은 단순한 가족의 역할과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계숙 외(2018)의 연구에서처럼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며,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년이 노인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청년이 자라온 경험의 맥락과 관련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손자녀가 조부모를 통하여 돌봄을 받았는지의 유무, 돌봄이 이뤄졌을 당시의 시기와 돌봄을 받은 기간,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 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상호 관계에는 기간과 시기뿐만 아니라 정서적 결속 및 갈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관계에 있어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해 줄 필요를 말하고 있으며, 돌봄을 단순히 가족의 문제로 여기고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돌봄이 노인에 대한 모든 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를 이미지, 수용성, 위협인식, 정책지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조부모를 통하여 돌봄을 경험한 경우 노인에 대한 정책 지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이후 돌봄이 이루어졌던 최초 시기와 돌봄을 받았던 기간 동안 정서적 결속 및 갈등에 따라 노인에 대한 수용성의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통하여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의 맥락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부모를 통한 돌봄이 손자녀에게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을 손자녀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는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많았는데, 돌봄을 통한 세대 간 관계는 조부모의 입장만 아니라 돌봄을 경험한 손자녀의 위치에서 다룬 연구도 필요하기에 손자녀가 노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지 분석한 것이 의미 있는 부분이었다. 둘째, 지금까지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노인 및 사회복지 혹은 관련 기관에 종사하거나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청년을 20-39세의 사회구성원으로 정의하여 보다 폭 넓게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조부모를 통한 돌봄을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생애발달 관점에서의 돌봄 시기와 돌봄 기간, 관계의 질(정서적 결속 및 갈등) 등 다양한 측면으로 돌봄의 경험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돌봄에 어떻게 접근하고, 가족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세대 관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안을 도출해갈 수 있을지를 찾아내는 것이 요구됨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및 부산 등 대도시의 363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성별 조합이 중요할 것인데 대부분 조모였고 조부의 비율이 적어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샘플을 통하여 조부모의 성차에 따른 차이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관계의 질에 있어서 손자녀를 통하여 정서적 결속 및 갈등을 측정하였으나 관계의 질을 손자녀만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 등을 통한 관계의 질을 다룸으로써 돌봄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포함한 넓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지숙, 정덕유, 김예영 (2009).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과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노년학*, 29(3), 851-865.
- 고경은 (2013). 다문화환경 초등학교에서의 접촉이론 적용가능성. *학교사회복지*, 25, 255-274.
- 고은교, 정민숙 (2008).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 아동이 지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1), 323-337.
- 김병조 (2018). 대학생의 전공관련 봉사활동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동의 조사연구. *인문사회21*, 9(5), 1427-1439.
- 김은경 (2003). 조부모 관련 변인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63-77.
- 김은정 (2015). 손자녀 돌봄지원 관련 연구 동향과 과제: 2000년 이후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50호, 69-96.
- 김은정 (2016).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연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 개인의 '라이프코스 퍼스펙티브(life course perspective)'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9(3), 147-190.
- 김윤경, 김주현, 민주홍, 오승은, 이정미, 한경혜 (2019). **한국사회와 노인**. 부크크.
- 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 김윤주, 방미란 (2011).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의 경험 - 내러티브 탐구. *질적연구*, 12(1), 59-72.
- 김영숙 (2002). 중, 고등학생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1(3), 76-89.
- 김원경, 전제아 (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53-671.
- 김효심 (1992). 조모의 역할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

- 으로-.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1, 63-80.
- 김혜영 (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 김혜영 (2018). 친밀성의 위기와 저출산 :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교차성. *보건복지포럼*, 35-49.
- 권명순, 노기영, 장지혜 (2013). 대학생의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3), 633-646.
- 민주홍 (2017). '돌봄'의 생애과정적 의미: 개념적, 실증적 연구를 위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5-34.
- 박윤경, 이은주, 류상희 (2016). 성인의 노인 접촉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관계 연구 : 충북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2), 81-109.
- 배문조 (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서선희 (2017). 적응인가, 위기인가? :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17-33.
- 석민애, 한경혜 (2018). 노인과의 일상적 접촉이 노인에 대한 어린이의 명시적 ·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8(3), 409-433.
- 안홍숙 (2016).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정책*, 43(3), 59-83.
- 안희란 (2015).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35(4), 1095-1113.
- 양경순, 한재희 (2013). 조손가정 조모의 심리적 경험 -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대상 조손가정 조모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2), 911-930.
- 오영란, 정태준 (2017). 한국과 일본 노인당사자들의 가족돌봄 의식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57, 347-370.
- 유계숙, 강민지, 윤지은 (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 2001년과 2017년 20대 미혼 청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학*, 20(3), 42-69.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모색. *노인복지연구*, 26, 143-164.



- 이신숙, Sonia Salari (2005).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95-218.
- 이신영 (2003).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2(2), 91-109.
- 이은희 (2010).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들의 노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6(3), 235-243.
- 이인수 (1991). 가족연구에 있어서 라이프 코오스(Life Course) 접근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1.
- 이영숙 (2010). 조모의 손자녀 돌봄만족과 관련변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취업 모가정의 동거조모와 비동거조모의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5-26.
- 이원영 (역) (1993). 편견의 심리. Allport, G. W. (1954) 의 The nature of prejudice. 서울 :성원사.
- 이자경, 장숙량 (2016). 손자녀를 돌보는 한국 조모들의 돌봄 특성에 따른 우울 증상. *한국노년학*, 36(3), 693-709.
- 이진경, 이재림 (2018). 한국판 세대 간 심리적 양가성 척도 타당화 : 청년자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105-130.
- 임정숙, 정순둘(2017). 노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제58호, 37-66.
- 원영희 (2003).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75-296.
- 장윤옥 (200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행동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청소년의 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1), 191-207.
- 정상희, 김은희(2013). 강원지역 A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13(6), 1071-1077.
- 조경진 (2017). 한국의 돌봄공백과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노인돌봄에 대한 사례 연구. *가족과 문화*, 29(2), 1-39.
- 조윤주 (201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우울에 관한 연구 : ABC-X 모델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335-359.
- 조현숙 (2017). 노인 돌봄 교육 프로그램이 시설 요양보호사의 노인 인식과 태도에

- 미치는 효과.** 가천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회*, 30, 97-131.
- 여성가족부 (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5). 제3차 가족실태조사.
-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 세대갈등, 노인의 기여,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28-241.
- 최윤희 (2012).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우울감에 관한 연구 : 손자녀 돌봄 노동 실태와 자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 강수경, 정미라(2019). 손자녀 공동양육 조모와 성인자녀의 결속도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공동운명모형(Commom Fate Model) 적용.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1), 15-26.
- 통계청 (2019). 고령자 통계.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한정란 (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4), 181-194.
- 한정란 (2004). 연령집단에 대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노년학*, 24(3), 197-210.
- 한정란 (2008). 연령집단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인구교육*, 1(1), 61-84.
- 한경혜 (1991). 세대관계 측면에서 본 Life Course 전이와 역연쇄전이의 시기 - 결혼연령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1(1), 36-49.
- 한경혜, 주지현, 정다겸 (2009).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26(8), 87-122.
- Bengston, V.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issue 1.
- Elizabeth D. Hutchison. (2008). *Dimensions of Human Behavior : The Changing Life Course*, SAGE.
- Girardin, M.,Widmer, E.D., Connidis, I. A., Castren, A.,& Gouveia, R.

(2018). Ambivalence in Later-Life Family Networks: Beyond Intergenerational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 768-784.

Thomas F. Pettigrew. (1999). Gordon Willard Allport: A Tribu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3), 415-427.

Thomas F. Pettigrew, Linda R. Tropp, Ulrich Wagner, & Oliver Christ. (2011). Recent Advances in intergroup contac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5, 271-280.

## 부록

### 조부모를 통한 돌봄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석사논문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실시되는 설문조사이며, 논문의 주제는 “조부모를 통한 돌봄 유무와 돌봄의 질에 따른 청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입니다. 손자녀가 조부모를 통한 돌봄을 경험한 유무와 질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관련하여 설문조사의 응답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설문지는 석사논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및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응답은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관계 연구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월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과정 김현정(010-7931-9981), 지도교수 민주홍

**I****일반적 특성****성별**

문1 귀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문2 귀하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

**최종학력**

문3 귀하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석사 졸업                      ④ 대학원-박사 졸업  
 ⑤ 기타(\_\_\_\_\_)

**학적상태**

문4 귀하가 현재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까?

- ① 다니고 있다                      ② 다니지 않는다                      (\_\_\_\_\_ ) 에 다니는 중

❖ 학교를 다니고 계시다면 해당하는 것을 괄호에 작성바랍니다.

예) 대학교 - 학사, 대학원 - 석사, 박사 등

**II****조부모동거경험****동거경험 여부**

문1 귀하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다음 문항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다 → 2쪽의 문13으로 가십시오.

**동거 시기**

문2 귀하가 최초 몇 살 때 조부모와 동거하였습니까?

\_\_\_\_\_세

**동거 기간**

문3 귀하 몇 년 동안 조부모와 동거하였습니까?

\_\_\_\_\_년

**돌봄경험 여부**

문4 조부모와 동거하는 동안 조부모께서 귀하를 돌봐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다음 문항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다 → 2쪽의 문13으로 가십시오.

❖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해당되는 분을 <b>모두</b>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5 귀하를 돌봐주셨던 조부모는 누구십니까? ① 할머니                      ② 할아버지                      ③ 외할머니 ④ 외할아버지                  ⑤ 기타( )
❖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해당되는 분을 <b>한분만</b>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6 귀하의 가장 주된 돌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① 할머니                      ② 할아버지                      ③ 외할머니 ④ 외할아버지                  ⑤ 기타( )

❖ 앞으로의 문항은 <문6>에서 선택한 **조부모 한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Ⅲ 가족결속도

조부모의 '돌봄을 받을 당시' 를 생각하시며 응답하여 주십시오.

집속 빈도	
문1 귀하를 얼마나 자주 조부모와 만났습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만나지 않았음	❖ 당시 조부모와 동거하셨던 분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2 귀하를 얼마나 자주 조부모와 통화했습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았음	
문3 귀하를 얼마나 자주 조부모와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를 주고받았습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았음	

4.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시 귀하와 조부모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전혀 가깝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가까웠음
5.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시 귀하의 삶에서 귀하와 조부모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 긴장감 또는 의견충돌이 있다고 느꼈습니까? 전혀 없었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많았음
6. 당시 귀하와 조부모 사이 소통(의견을 교환하거나 걱정에 대해 이야기 함)은 어땠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많이 했음
7. 당시 귀하 혹은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조부모가 얼마나 비판적이었습니까? 전혀 비판적이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비판적이었음
8. 당시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나 가치관은 조부모의 의견이나 가치관과 얼마나 유사했습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비슷했음

9. 당시 귀하는 조부모와 얼마나 다투었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많이 했음
10. 당시 귀하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조부모와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전혀 잘 지내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잘 지냈음
11. 당시 귀하가 조부모를 얼마나 이해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잘 이해했음
12. 당시 조부모는 귀하를 얼마나 이해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잘 이해했음

<b>생존여부</b>	
문13	현재 귀하의 조부모의 생존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있다 → 다음 문항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4쪽 IV. 노인애 대한 태도로 가십시오.

<b>현재 동거여부</b>	
문14	현재 귀하는 조부모와 동거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돌봄 이후 현재’ 조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며 응답하여 주십시오.**

<b>접촉 빈도</b>	
문15	귀하는 얼마나 자주 조부모와 만나십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만나지 않음 ❖ 현재 조부모와 동거하시는 분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16	귀하는 얼마나 자주 조부모와 통화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음
문17	귀하는 얼마나 자주 조부모와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를 주고받으십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음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해당되는 내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8.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귀하와 조부모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가깝지 않음 ① ← ② ③ ④ ⑤ ⑥ → 매우 가까움

19. 당시 조부모는 귀하를 얼마나 이해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음 ① ← ② ③ ④ ⑤ ⑥ → 매우 잘 이해함

20. 귀하의 삶에서 귀하와 조부모 사이 소통(의견을 교환하거나 걱정에 대해 이야기 함)은 어떠합니까?  
 전혀 하지 않음 ① ←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많이 함

21. 귀하 혹은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조부모가 얼마나 비판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전혀 비판적이지 않음 ① ←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비판적임

22.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나 가치관은 조부모의 의견이나 가치관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음 ① ←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비슷함

23. 귀하는 조부모와 얼마나 논쟁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음 ① ←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많이 함

24. 현 시점에 귀하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조부모와 얼마나 잘 지내십니까?  
 전혀 잘 지내지 않음 ① ← ② ③ ④ ⑤ ⑥ → 매우 잘 지냄

25. 귀하가 조부모를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음 ① ← ② ③ ④ ⑤ ⑥ → 매우 잘 이해함

26.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귀하의 삶에서 귀하와 조부모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 긴장감 또는 의견충돌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없음 ① ←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많음

현재 조부모가 생존해 계시다면, 아래의 유형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귀하와 조부모가 주고 받았던 도움과 지원에 대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유형	조부모에게 도움을 드린 적 있다		조부모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 있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정서적 지원 예) 삶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대화/ 조언				
2. 도구적 지원 예) 설거지, 장보기, 병원 가기 등				
3. 경제적 지원 예) 용돈 등				



IV

노인에 대한 태도

귀하는 평소 노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래 20개 항목에 대하여, 다음 <예>와 같이, 자신의 느낌을 1에서 5까지 정도에 따라 V표 하여 주십시오.

노인을 볼 때 매우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V  
존경스럽다 (1) (2) (3) (4) (5) 한심하다

또 노인을 볼 때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V  
존경스럽다 (1) (2) (3) (4) (5) 한심하다

	항목	(1)	(2)	(3)	(4)	(5)	항목
1	깨끗하다	1	2	3	4	5	지저분하다
2	잘생겼다	1	2	3	4	5	못생겼다
3	촌스럽다	1	2	3	4	5	세련되다
4	허약하다	1	2	3	4	5	건강하다
5	침착하다	1	2	3	4	5	덤벙댄다
6	무식하다	1	2	3	4	5	유식하다
7	멍청하다	1	2	3	4	5	똑똑하다
8	중요하다	1	2	3	4	5	쓸모없다
9	재주가 많다	1	2	3	4	5	잘 하는 게 없다
10	남을 잘 믿는다	1	2	3	4	5	의심이 많다
11	못됐다	1	2	3	4	5	착하다
12	게으르다	1	2	3	4	5	부지런하다
13	재미있다	1	2	3	4	5	재미없다
14	용기가 없다	1	2	3	4	5	비겁하다
15	불만이 많다	1	2	3	4	5	불만이 없다
16	책임감이 있다	1	2	3	4	5	책임감이 없다
17	우울하다	1	2	3	4	5	명랑하다
18	친절하다	1	2	3	4	5	불친절하다
19	이기적이다	1	2	3	4	5	너그럽다
20	거짓말을 잘 한다	1	2	3	4	5	정직하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노인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1	2	3	4	5
22	우리 지역에 노인이 증가해도 좋다	1	2	3	4	5
23	노인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24	노인이 노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1	2	3	4	5
25	노인이 늘어나면 젊은이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1	2	3	4	5
26	노인이 늘어나면 젊은이와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1	2	3	4	5
27	노인이 늘어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28	노인이 늘어나면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1	2	3	4	5
29	노인을 지원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	1	2	3	4	5
30	노인이 젊은이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	1	2	3	4	5
31	노인의 취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1	2	3	4	5
32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나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1	2	3	4	5

## Asbtract

Effects of Grandparents' Caregiving Experiences among  
young adults on Attitudes toward the older adults  
- Focus on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

Kim, Hyeon Jeong

Department of Human Ecology & Welfa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oohong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grandparent caring experiences among young adults on attitudes toward the older adult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grandparent-grand child on the association between grandparents' caregiving and attitude toward older adults. The study used a sample of 363 participants (136 males, 227 females) aged 20 to 39.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group who experienced care from grandparents reported positive attitude toward older adults for the policy support. Second, those who experienced care from their grandparents earlier in their life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older adults for acceptability.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relationship quality (emotional cohesion and confli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timing and duration of care and attitudes toward the older ad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grand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older adults were influenced by whether they had experiences of care from grandparents, when they received care, and how long they received care, from their grandparents. Emotional solidarity and conflict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were found to interact with timing of caregiv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caring experiences from various aspects and examines how to approach the care of grandchildren through grandparent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ng generation and the older generation.

Future research will shed light on to examine the qualit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grandparents and parents as well as grandchildren. It is necessary to be more specific about the context in which care takes place.

Key words : caregiving, generational relations, attitudes toward the older adults, contact theory, life course perspective